

트럼프 시대, 글로벌 IT기업들 '당혹'

'아이폰 공장 미국으로 옮길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9일 (현지시간)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제조사인 애플의 걱정이 크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IT기업에 대한 관심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지난 1월 버지니아 유세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애플의 아이폰을 중국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을 자국에서 걷겠다는 취지다. 애플은 대부분의 아이폰 제품을 홍하이그룹의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만들어 공급받는다. 홍하이그룹의 기술력이 뛰어나고 중국이 미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서 만들게 하겠다... 중국제품에 높은 관세"

애플, 대부분 중국 폭스콘 공장에서 공급... 실적 정체도

빌 게이츠 MS회장 민주당 부통령 후보에 오른 인물

페이스북, 반 이민자 정책·인종차별 가치관에 충돌

앞선 대선후보로 트럼프는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높게 책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공약이 이뤄지면 아이폰의 생산 원가가 대폭 올라 애플의 영업이익에 타격을 준다.

실적이 정체된 애플로서는 당혹스런 상황이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발표된 3분기 실적에서 애플은 2001년 이후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줄어들었

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곤혹스런 상황이 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은 정치적 문제로 트럼프와 대척점에 서 있다. 빌 게이츠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왔다. 게이츠는 민주당 부통령 러닝메이트 후보로 불릴에 오른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빌 게이츠는 복수의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역대 정권

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다만 게이츠 재단이 하는 일을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더 잘 이해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전세계 이용자를 고객으로 둔 페이스북은 트럼프의 반 이민자 정책과 인종차별 가치관에 충돌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적 입장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있다.

다국적 IT기업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IT업계는 두뇌 싸움으로 그야말로 인제 경쟁이다. 구글을 비롯한 수많은 미국 IT기업이 외국인 인재를 끌어들이며 성장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순수 미국 혈통을 강조하고 백인 우월주의가 강하다. 그의 반 이민자 정책은 우수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미 대선 결과, 위기 아닌 기회 삼아야"

강호인 "주택·해외건설·자동차·항공분야 철저 대비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45대 대통령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국내 건설·부동산과 자동차·항공 산업 영향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미국 대선이 마무리된 지난 9일 오후 6시에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 대선 결과에 따라 주택시장과 해외건설, 자동차, 항공수요 등 다양한 현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날 회의엔 최정호 2차관을 비롯해 국토도시실장, 주택토지실장, 교통물류실장, 항공정책실장, 건설정책국장 등 국토부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시장이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해외건설의 경우 저유가와 이란 경제제재 가능성 등 부정적 요인이 커질 수 있지만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동차 산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큰 틀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항공 분야는 미주 방향 환승수요 변화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변화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후 경기변동 추이와 환율, 유가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자 공약·정책방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토교통 분야 정책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카카오, 3분기 매출 3913억

콘텐츠 선전 덕 '개선' ... 광고 매출은 떨어져

카카오가 게임, 멜론, 웹툰 등 콘텐츠 사업의 선전에 힘입어 실적이 크게 올랐다. 다만 인터넷기업의 전통적 수익원인 광고 매출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3분기 매출 3913억9100만원, 영업이익 302억5600만원, 순이익 138억2600만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은 70.5%, 영업이익은 87%가 올랐다. 당기순이익은 7.7% 하락했다.

올들어 3개 분기 누계 매출액은 1조 103억9400만원, 영업이익은 779억6400만원, 당기순이익 378억1400만원이다.

카카오의 실적은 콘텐츠 플랫폼 매출이 이끌었다. 게임, 멜론, 웹툰과 웹소설 등이 포함된 콘텐츠 매출은 1983억 6500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2%나 올랐다.

부문별로는 게임 콘텐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2.7% 증가한 785억원을 기록했다. 모바일 채널링 게임 '김과마법 for Kakao' 등 주요 신작들의 인기와 모바일 게임 배급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매출은 955억원, 다음웹툰과 유료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 등의 기타 콘텐츠 매출은 244억원이었다.

광고 플랫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

간 대비 13.5% 감소한 126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의 광고 매출이 점점 떨어지면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카카오는 "광고 시장의 비수기 영향과 광고 효율화를 위한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광고 매출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매출은 661억원이었다. 지난 7월 문을 연 카카오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의 매출 증가와 카카오톡 선물하기 매출 성장의 힘이 컸다.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음반 유통 매출도 성과에 기여했다.

영업 비용은 지난해 같은 대비 69.2% 증가한 3611억3600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302억5600만원으로 영업이익률은 7.7%다.

카카오는 "콘텐츠 마케팅 활동에 따라 광고 선전비가 증가했다"며 "게임 및 콘텐츠, 커머스 영역 전반의 성장에 따른 지급수수료 증가가 더해져 영업비용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서비스 전반에서 성장 구조를 만들었다. 다음앱은 뉴스 개편에 이어 핵심적인 개편들을 준비 중"이라며 "카카오채널, 게임 사업, 콘텐츠, 캐릭터 사업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성장을 꾀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지는 연간 거래액 10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사이버범죄사범 최근6개월간 2만여명

20·30대 70%
인터넷사기 55.7%
초범 70%

경찰이 최근 6개월 간 2만여명의 사이버범죄사범을 붙잡았다. 이들 중 10명 중 7명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5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 5대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2만2578명(1만9594건)을 검거해 788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검거인원 중에는 인터넷사기가 1만2575명(55.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사이버도박(5981명·26.5%) ▲아동·음란물(1713명·7.6%) ▲사이버금융범죄(1646명·7.3%) ▲개인정보침해(663명·2.9%) 순이었다.

순경 인원 중 통장매매범과 법인 등 2020명을 제외한 2만1558명 중에는 20·30대가 1만4403명(70%)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878명(43%), 30대는 5616명(27%)으로 집계됐다. 10대는 2847명으로 전체의 14% 수준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사기 중 20대(5639명)와 10대(2482명)가 가장 많았다. 20대의 경우 아동·음란물

(691명)과 사이버금융사기(373명) 유형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침해나 사이버도박 유형은 30대가 각각 203명, 255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사이버범죄사범 중에는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가 1만4318명(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인터넷사기와 사이버도박의 비중이 높았다. 다만 전과 1범(200명)이나 2범(800명)보다는 3범 이상 이 3439명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1만7981명으로 여성(2577명)보다 1만5404명 더 많았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범죄수익금 환수조치 등을 병행했다.

이 결과 인터넷사기 수익 8억1800만원 상당을 피해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처리했고 범죄에 이용된 계좌 878개와 아동·음란물, 사기사이트 등 439건을 차단했다.

또 범죄수익금 275억2000만원을 몰수·압수하고 사이버도박 운영자와 이용자 642명에 대해 도박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고 빠진 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국제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사이버사범 법질서를 침해하는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크리스마스 선물 미리 받아주세요'

쉐보레, 11월·12월 대규모 전시장 방문 이벤트 개최

쉐보레(Chevrolet)가 11월과 12월 두 달 간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추첨을 통해 대규모 전시장 방문 이벤트를 실시한다.

쉐보레는 한 해 동안 쉐보레를 응원해준 고객 성원에 감사하고자 쉐보레 전시장을 방문해 응모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매주 5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 전 원에게 선착순으로 5천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및 무릎 담요를 선물한다.

이번 이벤트는 가까운 쉐보레 전

시장에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

당첨자 확인 및 자세한 사항은 쉐보레 홈페이지(<http://www.chevrolet.co.kr/chevy/event/gm.idxno=2396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지엠 리테일 마케팅본부 조인상 상무는 "올 한해 쉐보레 제품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연말까지 풍성한 쉐보레 전시장 이벤트를 준비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쉐보레를 경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류정곤 기자

구독신청 288-9700

“ 세상을 가꾸는 노력, 당신의 정치후원금이 큰 힘이 됩니다 ”

정치후원금이란? 정당 및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

후원금이란?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

온라인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검색창에서 정치후원금센터를 검색하세요

신용카드 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복합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요금 결제

간편 결제
Kakao Pay
PAYCO
Paynow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하기

정치후원금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 공제

깨끗한 정치문화 만들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이해 10만원 초과

전액 세액공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1천억원